



2008년도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가위원회 워크숍

결 과

- 날짜: 2008. 9. 18. (목)
- 장소: 서울유스호스텔 중회의실
- 주관: 유네스코한국위원회, KOC(한국해양학위원회)
- 후원: 지구의 해 한국위원회
- 참가자: 총 26명
 - 국제수문학프로그램(IHP) 한국위원회 (4명)

이순탁 영남대학교 석좌교수	김중훈 고려대학교 교수
김태웅 한양대학교 교수	이재형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실 사무관
 -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(IGCP) 한국위원회 (2명)

박용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	최유정 서울대학교 석사과정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 - 한국해양학위원회(KOC) (6명)

강정극 한국해양연구원 원장	유홍룡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
허 식 한국해양연구원 대외협력실장	조홍연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
최효진 한국해양연구원 대외협력실	박 봄 한국해양연구원 대외협력실
 - 인간과생물권계획(MAB) 한국위원회 (6명)

최청일 한양대학교 교수	조도순 가톨릭대학교 교수
황순진 건국대학교 교수	허학영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외협력팀장
차진열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팀장	
최종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계회복추진팀장	환경부
 - 유네스코한국위원회 (6명)

이삼열 사무총장	허 권 정책사업본부장
과학팀 임현묵 팀장, 김은영, 홍보강, 허정연	
 - 유네스코독일위원회 (2명)

Dr. Roland Bernecker 독일위원회 사무총장
Dr. Lutz Möller 독일위원회 과학팀장

○ 주요내용

- 제1부: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독일위원회 활동 소개
- 제2부: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국제 현황과 국내 활동
- 제3부: 신진 연구자 발표
- 제4부: 과학프로그램 발전 방안 모색

○ 주요논의

- ※ 제1부 독일 과학프로그램 활동 소개 위주 정리 (2-3부는 생략, 4부는 별도 정리)
 - 독일은 IHP, IGCP, IOC, MAB 4개 국가위원회 운영중. 모두 중앙 관계부처가 훈령 등에 의거 설립. 해당 부처 산하 유관기관에서 사무국 운영(MAB-환경부, IHP-관련부처 공동, IGCP-외교부, IOC-자원부)
 - 각 위원회 회의시 타 위원회 대표를 초청하는 상호초청(mutual invitation)을 시행하여 정보교류 도모. 일부 위원회는 교차멤버십(mutual membership) 제도 시행
 - 유네스코독일위원회는 4개 과학프로그램 국가위원회에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고, 4개 국가위원회 대표는 모두 유네스코독일위원회의 과학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
 - 유네스코독일위원회는 과학프로그램의 대중적 홍보(public outreach) 활동을 지원. 예컨대 동 위원회 반년간지 UNESCO Today를 통해 MAB 사업을 홍보 (독어판 9000부 인쇄, 영어판 번역은 외교부와 환경부가 지원)
 - 4개 프로그램 위원회간 협력사업 추진을 시도하고 있으나 프로그램별 목적이나 특성이 달라 별다른 진전은 없음
 - 독일 IGCP 위원회의 경우 IGCP Scientific Board 참가 경비는 외교부에서 지원함

○ 2007년 워크숍 결과 이행 평가

- ‘지구의 해’ 기념사업: 예산 문제로 추진 못함. ‘지구의 해’ 선포식 행사의 일환으로 해양연구원이 해양연구포럼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유네스코한국위가 이를 지원함. 작년 권고안의 취지는 지구의 해에 관하여 4개 프로그램 공동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나, 이 의도를 살리지 못해 아쉬움
- 과학프로그램 남북 협력사업 강화: MAB는 북한 생물권보전지역 홍보물 발행 및 외래종 영향 평가 지원했으며, EABRN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과 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. KOC 또한 PICES(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) 등을 통해 북한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
- 유네스코 과학프로그램 정책연구: MAB는 생물권보전지역 법제화, 지자체 공무원

- 워크숍 등을 포함하는 정책연구사업 추진 예정. KOC는 한국 전문가의 IOC, PICES 회의 참가를 지원하고 있음
- 4개 과학프로그램 공동연구 추진모색: 추진 실적 없음. 공동연구보다 공동활동 추진이 현실적임

○ 향후 협력 방안

1. 프로그램간 시너지 확보

각 위원회별로 타 위원회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해 참여케 하는 mutual membership 제도는 각 위원회 규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. 이러한 정식 위원 자격이 아닌 참관 자격의 참석을 요청하거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을 각 위원회에 참여케 하여(현재 KOC, IHP, MAB는 참여중) 프로그램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함

2. 남북협력

각 위원회의 추진 정보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에 제공하고, 과학팀이 취합하여 각 위원회에 제공

3. 정책연구

정책연구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‘**과학프로그램 관련 주요활동 한국 참여 증진**’으로 그 취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기로 함. 각 위원회별 한국 활동 현황을 평가한 뒤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그 실천을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함

4. 공동연구

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동연구보다 공동활동을 추진기로 하고, 과학 대중화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공동기획을 모색기로 함. 이와 관련, 과학창의재단(구 과학문화재단)과 협력을 모색기로 하고, 이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기로 함. 추진위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위원 1인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여 11월 말까지 구성기로 함. 아울러 추진위 활동 경비는 각 위원회별로 분담기로 하고, 동 경비 예산안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작성기로 함

5. 이메일 뉴스 레터

과학프로그램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공동활동 추진상황 공유를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이메일 뉴스레터를 각 위원회에 분기별 1회 발송기로 함. 이를 위해 각 위원회는 뉴스레터에 게재할 내용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제공기로 함

6. 2009년 워크숍

금년 워크숍은 개최 시기와 장소 문제로 인해 참가자 수가 적었음. 특히 국회 일정과 겹쳐 정부 관계자 참가가 어려웠음. 이와 함께, 4회째 계속된 워크숍 내용이 반복되는 문제와 각 프로그램별 관심도 저하를 고려할 때 매년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. 이에 대해, 시기와 장소를 신중하게 선택하면 많은 수가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. 이에 2009년 워크숍 개최 여부는 각 위원회별로 더 논의키로 하고, 특히 차기 워크숍 주관 위원회인 IHP위원회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추후 협의키로 함